

취 임 사

친애하는 회원사 대표 여러분!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2021년 임시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임된 (주)리에스케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이사 김영석입니다.

우선, 협회설립 초대부터 3대까지 협회장의 중책을 맡아 부단한 노력으로 업계의 기초를 다지고 전인차 역할을 다해주신 전임 이민석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우리 협회와 업계의 발전을 위해 도와주신 회원사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업계 모두가 열정으로 키워온 산업폐기물매립협회의 조타수라는 막대한 소임을 맡아 큰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어려운 인고의 시간을 견뎌주신 대표님들의 바람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냄과 동시에, 언택트 소비 확대로 인하여 폐기물이 쏟아지며 국민들에게 폐기물처리의 중요성이 집중 부각된 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대표 여러분!

우리업체는 국가의 온갖 보호 장벽에서 성장해온 다른 업종과는 달리 오로지 우리의 노력만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우리업체에는 매서운 저울바람 만끽이나 날카로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안정적인 정책 환경 속에서 우리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협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업체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기관과의 소통으로 업체 의견 전달에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전임 이민석 회장님께서도 정책기관과의 관계개선 및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 폭넓은 창구를 개척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지속 하였습니다. 저 또한 우리업체의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정책과 관련한 정부, 국회, 유관기관들과 소통을 통해 우리가 목표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 기반시설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협회는 국민과 정부가 폐기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재활용 방치폐기물을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함께 19년부터 22만여 톤이 넘게 공익사업으로 우선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국민에게 민간 매립업체가 단순한 폐기물 처분업이 아닌 국가 중요 기반시설 및 산업으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사의 공익사업 기능을 확대하여 국가 기반시설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협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매립업체의 다양한 현안들을 담당하는 유일한 협회로서 대외적인 성과를 내고 회원사들이 믿을 수 있는 협회가 되기 위하여 임직원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립업체의 최전선이자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할 것이며, 회원사와 관련 단체로부터 신뢰받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사 대표 여러분!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사 모두 한가족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협회 회원사 모두는 국내 매립업계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고 업계 현안과제들을 올바른 시각과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결하여, 업계의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성장과 국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역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계의 발전을 위해 회원사 대표님들께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년간 협회를 이끌어 오신 이민석 회장님의 치적에 누가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하며 취임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26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제4대 회장 김영석배상